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4 호   7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4 호 (228)
1963년 7월 (하)

(반 월 간)

차 례

나라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책임성

강 희 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일'군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갈 데 대하여 중요하게 교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 제 4 차 대회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의 진수를 옳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 인민은 해방 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 반봉건적 처지에 놓여 있던 우리 나라의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 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기초하여 날로 륭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 농업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아울러 경공업 기지도 마련하였으며 흉풍을 모르는 농촌 경리를 가지게 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의 확립과 물질적 재부의 부단한 증대로 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매우 복잡한 기계 설비도 자체로 만들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 요구되는 많은 재부를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빈궁과 기아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은 로동당 시대에 와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비로소 해결하게 되였으며 모두가 일하며 배우는 문명한 인민으로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 있게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혁명을 보다 성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 있게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킴에 있어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부원과 내부 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생산의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인민들이 푼전을 아껴 가며 건설해 놓은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하며 우리 나라에 풍요한 자연 부원들을 남김 없이 동원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등 생산의 모든 가능성과 예비들을 적극 동원함으로써만 우리는 적은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 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는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에게 나라 살림살이에 머리를 쓰며 그를 책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것을 더욱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모든 일'군들이 살림'군답고 주인다운 립장에 확고히 서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하여 머리를 쓰며 알뜰히 꾸려 나감으로써만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도 살림살이를 더 잘해 나갈 수 있으며 건설한다 하여도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론에서 살림살이를 잘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자신들의 절실한 체험을 통하여 로동당만이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활동에 달려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지휘 성원들, 간부들에게 크게 달려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수립된 다음에 그의 성과 여부는 그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일'군들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교시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불리한 지대적 조건 하에서도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반면에 일'군들이 살림살이를 잘 조직하지 못 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우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고 단일한 사회주의 경리로 된 오늘의 조건 하에서 일'군들이 살림살이를 잘 꾸리며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감이 없이는 사회주의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개인 경리 때에는 주인이 어디까지나 개인이였지만 사회주의 경리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조건에서는 호주가 당 위원회와 인민 위원회들이다.

여기에서는 《…생산도 계획적으로 하고 분배와 소비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생산품도 계획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계획적으로 운반도 하여야 하고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먹여 살려야 하고 입혀 주어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45 페지)

오직 모든 일'군들이 하나로 단합된 사회주의 경리의 주인으로 전체 인민들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논하고 머리를 쓰며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갈 때만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정

성껏 가꾸는 것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크게 늘어 난 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인민 경제의 규모는 더욱 방대해졌으며 그 부문 간의 련계가 복잡하게 되였고 고도로 조직화되게 되였다.

당과 인민은 수많은 재산과 로력, 방대한 살림살이를 당 위원회와 그 지도 일'군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이 매개 단위, 매개 초소에서 살림살이를 잘 조직하지 못 한다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전반을 추켜 세울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에서 약한 고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더우기 인민 경제 부문 간 련계가 강화되고 협동 생산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살림살이가 잘못 되여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면 이 때에는 인민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세간살이가 적을 때에는 계획도 없이 이럭저럭 적당히 지낼 수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방대한 세간살이를 계획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해 나갈 수는 도저히 없다.》(선집 제 6 권, 504 폐지)라고 교시하였다.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만 인민 경제 부문 간 기업소 호상간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생산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갖 밑천들이 충분히 마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공장, 기업소들과 광산, 철도 그리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 산과 전야, 바다와 하천이 모두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공동 재부로 되여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모든 시설들이 인민의 재산으로 되여 있다.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일'군들이 어떻게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일'군들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는 우선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는 데서 표현된다.

우리 당 정책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의 근저에는 나라의 발전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한 인민들의 념원이 안받침되여 있다.

당과 인민이 력량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바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당은 항상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령역,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를 그때그때에 명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은 곧 건설과 생활을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 전반을 위한 투쟁이다.

오직 일'군들이 당 정책을 깊이 연구 체득하여 그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가적 사업 기풍을 소유함으로써만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창조적 열성을 다할 수 있다.

생활은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머리를 쓰며, 나라와 인민의 생활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애를 쓸 때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도 근로자들의 부식물 공급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관철을 위한 평양시 인민 위원회 산하 해당 부문 일'군들의 사업 경험은 이를 잘 실증하여 준다.

이 부문 일'군들은 사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평양시 주변에 확고한 채소 기지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경험이 없으니 단시일 내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보수주의적 경향과 투쟁하면서 그 일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일이 막히면 군중과 토의하고 일'군들 자신이 현지를 답사하여 적지를 찾아 내여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식 재배 방법을 연구 도입하는 등 당 정책 관철을 위해서 생각을 짜내여 각가지의 방법을 다함으로써 수년 전에 비하여 4 배 이상의 소출을 낼 수 있고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채소 기지와 그의 생산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에서 사료 원천을 탐구하고 과수 재배 적지를 찾아 내여 축산, 과실 기지까지도 해결하여 놓았다.

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일'군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 만큼 당 정책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없이는, 그의 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 붙는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함이 없이는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그들의 높은 책임성이 발현될 수 없다. 때문에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는 것은 혁명 위업의 필승 불패의 담보로 된다.

일'군들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는 또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데서 표현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이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만들어 내는 창조적 정신이며 그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함 없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사상이며 혁명 정신이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립장을 견지함으로써만 나라의 살림살이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의 창조적 열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원래 나라 살림살이 그 자체도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자신의 힘으로 나라와 인민의 생활을 유족하게 꾸리는 것이다.

혁명의 요구가 이렇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에 대한 주체적 립장을 견지하고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기가 맡은 살림살이를 옳게 꾸려 나갈 때라야만 나라 전반의 살림살이를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매개 부문과 초소들에서 당이 제기한 전투적 과업들을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나가야 하며 이에 따라 고도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는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나서고 있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풍족하지 못 한 조건에서 일'군들이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잘 살 수 있겠는가고 늘 머리를 쓰며 일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오늘 우리 일'군들이 모든 것을 무심히 보거나 대하지 말며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부족한 것은 더 찾아 내여 잠재하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 없이 동원하는 그러한 사업 기풍을 확립함으로써만 생산의 부단한 앙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우에서 사업 조건을 해결해 주고 필요한 물자를 대주기만 기다리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업 작풍이 나올 수 있으며 결국 진정한 살림'군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과정은 바로 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과정인 것이다.

평양시 지방 산업 총국 당과류 모체 공장을 비롯한 시내의 많은 기업소 일'군들의 사업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대중을 발동시키기만 한다면 파묻혀 있는 예비와 생산 장성의 가능성을 모조리 찾아 내여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과 문화 시설까지도 자체로 충분히 갖출 수 있다.

당과류 모체 공장 지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기계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공장은 자체로 기계화 자동화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파묻힌 예비를 찾고 손로동 부문의 기계화에 머리를 쓴 결과 설계도 자체로 만들어 내였으며 15 종의 새로운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수공업적인 생산 공정 부문을 기계화 또는 자동화할 수 있게 되였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만 더욱 빛나게 발휘될 수 있다.

자체의 힘에 의하여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는 이 사상은 구체적으로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 제도와 그의 전취물—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애호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결국 국가와 인민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표현된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재부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귀중한 재부를 어떻게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겠는가 하고 항상 머리를 쓸 때는 길'가의 일목 일초라도 결코 무심히 지내 보낼 수 없는 것이며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창의 고안 운동》, 《나의 기대 운동》, 《원자재 절약 운동》 등은 바로 애국주의 사상의 발현이다. 이러한 애국주의 사상은 결국 없는 것을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여 일하는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양시키게 되며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 나갈 수 있게 한다.

일'군들이 주인답게 일하며 나라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다만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만으로써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오직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이 확립될 때에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나라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것은 결국 인민을 위하여 하는 일이며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민 대중 자신의 힘—그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이 진정한 살림'군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당과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과 더불어 의논하며 막힌 고리를 풀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수 많은 실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군들이 이러한 관점과 사업 작풍을 확고히 소유하였을 때에라야만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옳게 결부하여 생각할 줄 알며,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중의 관심을 나라 살림살이에 돌리며 그들의 힘을 이에 동원할 줄 아는 조직자적 기능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부단한 자체 수양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관점과 사업 작풍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과 우리 당 정책, 그리고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가적 기풍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인민에게 보다 더 충실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모든 일'군들이 매개 부문, 매개 초소들에서 나라 살림살이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책임지고 일해 나갈 때 그것은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 위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승리의 의의

—조국 해방 전쟁 승리 10 주년에 제하여—

박 도 명

우리 인민이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때로부터 10 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다.

그러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의 의의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을 뿐더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은 자기 앞에 다양한 임무를 제기한 전쟁이였다. 그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세계 대전 도발 책동을 분쇄하고 항구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였다. 이 전쟁은 인류 력사에서 작은 나라 인민 그것도 장기간의 식민지 기반 하에서 금방 해방된 인민이 겪은 가장 대규모적이고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는 점에서도 특이하였다.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전쟁 경험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피압박, 피착취 대중에게 있어서 극히 귀중한 것으로 될 것은 응당한 일이다.

* *

조선 전쟁은 제 2 차 대전 후 사회주의와 민족 해방 력량을 반대하는 미제의 부단한 새 전쟁 도발 소동의 긴 련쇄의 한 고리였다.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과 그 이전의 전쟁 도발 소동 간에 련계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지만 조선 전쟁이 그 이전의 전쟁 도발 소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조선 전쟁은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 대전 도발의 본격적인 불'집이였다.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온 미제의 세계 제패 야망이 제 2 차 대전 이후 극도로 로골화되게 된 것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심각화된 데 기인된다.

제 2 차 대전에 의하여 자본주의 공업 생산의 3 분의 2를 차지하리 만큼 팽창된 미국의 경제는 전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과잉 공황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정치적 면에 있어서도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날로 확대 강화되고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이 발전되며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지반은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되였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커다란 공포에 휩쓸어 넣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로를 위해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하였다.

미제는 새로운 세계 대전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반제 력량을 말살하고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여 보려고 망상하였다.

원자탄 독점과 경제 군사적 우위성에 의거하여 새 세계 대전의 승리자로 될 수 있다는 망상은 그들을 더욱더 새 전쟁 도발의 길로 줄달음치게 하였다. 1945년 12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우리는 그것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가 얻은 승리는 미국 인민에게 장차 세계를 지도할 중책을 부과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미제의 세계 제패 야망을 로골적으로 표시하였다.

1948년부터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공황에 빠져 들어 가게 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은 새 전쟁 준비 정책에서 직접적인 전쟁 도발 정책으로 넘어 가게 되였다. 문제는 미제가 어데서 새 세계 대전의 불'집을 일으키느냐 하는 데 있었다. 미제는 이러한 조건에서 바로 조선을 첫 대상지로 선택하고 우리 나라를 강점하려 하였다.

조선은 중국과 함께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에서 항상 중요한 대상으로 되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을 차지한 아세아의 요충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군사 전략 상 의의로 보아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이 차지하는 군사 전략 상 중요성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평가는 이미 악명 높은 일제의 《다나까 상주서》에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거기에서는 《세계를 제패하려면 아세아를 정복하여야 하며 아세아를 정복하려면 중국을 점령하여야 하며 중국을 점령하려면 조선을 예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 2 차 대전 이후 국제 력량 관계가 변하면서 아세아의 의의가 증대되고 더우기는 중국 혁명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조선은 군사 전략 상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는 사회주의 진영의 2 대 강국인 쏘련 및 중국과 린접하고 있으며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전략적 거점인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 철도망들과 련계를 가진 조선 철도와 조선의 편리한 항만을 리용하여 일본으로부터 대륙으로 자기 군대를 이동하기 위한 중간적 병참 기지로 조선 반도를 리용할 것을 타산하였다.

그들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남반부 인민들뿐만 아니라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운동 발전에 주는 영향력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조선에서 전쟁 도발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과 함께 대만 강점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조선 전쟁을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전쟁 개시의 서막으로 리용할 것을 념두에 두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미제는 조선 전쟁 기간 항시적으로 자기의 3분의 1의 륙군, 5분의 1의 공군, 대부분의 해군을 출동시켰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 2 차 대전 기간에 구라파와 아프리카 및 아세아에 투입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력을 조선 전선에 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조선 인민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속단하였던 적들은 1950년 7월 15일 신문 《옵써버》 평론가가 쓴 것처럼 《가장 적은 국가인 북조선 군대가 어떻게 미국 군대를 격퇴하며 바다로 몰아 넣고 있는》가를 보게 되자 당황망조하여 더욱더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잡지 《유나이테드 뉴스 앤드 월드 리포드》까지도 《조선 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노력, 막대한 희생, 무기와 딸라의 방대한 지출을 필요로 한 대규모의 전쟁들 중 하나로 전변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 전쟁 력사에서 조선과 같은 협소한 지역에 그와 같이 방대한 무력이 투입되였던 례는 일찌기 없었다. 미제는 북반부의 해안선들을 계속적으로 봉쇄하고 있었고 만 메터 내외의 상공에 뜨면 동서 해안이 바라 보이는 협소한 북반부를 700~1,000 대의 비행기로써 매일 주기적으로 2회씩 습격하였다. 적들은 전선에서 형세가 불리하게 되여 정전 담판에 응해 놓고도 계속 방대한 무력을 전선에 투입하면서 《영예로운 정전》을 꿈꾸었다. 그들은 전선에서도 정전 담판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세균 무기를 사용하는 등 그의 야수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미제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악독한 중세기적 방법을 다 사용하였다.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서 가혹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정신을 계승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과 함께 미 제국주의자들을 괴수로 한 15 개국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 조국을 식민지화하고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려던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적 모험은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조선 인민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원쑤들을 완전히 타승하였다.

※ ※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조선 혁명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 혁명 운동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을 수호하였다.

제 2 차 대전 이후 국제 헌병의 임무를 자담하여 나선 미제는 조선 전쟁을 도발하면서 국제 반동 세력을 모두 규합하여 세계 사회주의 진영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상당

시 세계 력량 관계는 오늘의 형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반적으로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었고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형제 나라들에 커다란 물질적 원조를 줄 만한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제 2 차 대전 시기 방대한 규모로 증대된 군사적 력량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벌써 사회주의 진영의 주변에 조밀한 군사 기지망을 설치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 미제의 지도적 지위도 아직 확고하였고 이 진영 내부 모순도 그리 심각화되여 있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전선에서 미제 침략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인민 군대는 우방의 지원 하에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고수하는 애국주의적 임무와 함께 사회주의 진영을 수호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 인민의 간고한 투쟁은 형제 나라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적 건설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곤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월남에 대한 불란서 침략에 대하여도 이전처럼 원조할 수 없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승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가일층 공고화하였다.

조선 전쟁은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이 철석 같이 굳게 단결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략적 시도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된 위력 앞에서 국제 반동 세력을 자기의 지휘 하에 결합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던 미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여지 없이 파탄되였다. 전쟁에서 패배가 거듭될수록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는 분렬이 심화되였고 내부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사회주의 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그 우월성을 여실히 증명하였으며 이 제도가 불패의 제도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이 하나와 같이 단합하여 제국주의의 아성인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이 준엄한 시기에 자기를 맑스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유고슬라비야 쩌또 수정주의 도당은 유엔에서 미제를 극구 비호하여 나섰으며 조선 인민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 성원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한 책동들을 다하였다. 오늘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 도당이 미제에 아부하면서 적들의 침략 정책을 적극 미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분렬시키려고 가증스러운 음모 책동을 꾸미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된 위력 앞에서는 수정주의자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도 항상 분쇄되고야 마는 법이다.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의 통일 단결

의 강화는 이 진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돌격대》의 《후방 기지》를 공고화한 것으로 된다.

조선 전쟁 행정에서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 간에는 국제주의적 호상 협조의 새로운 형태들이 개화 발전되였다. 특히 중국 인민 지원군의 조선 전선 참전은 강대한 나라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형제 나라에 주는 국제주의적 원조의 고상한 표현이였다. 조선 전선에서 조중 인민의 공동 투쟁과 그 승리는 사회주의 동방 진지가 난공 불락이며 국제 제국주의의 련합된 세력의 어떠한 발악적 공세도 두 나라 인민의 단결된 위력 앞에 격파되고야 만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조선 전쟁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에 의거하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도 전반적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많은 자본주의 나라 공산당들은 미제의 강요로 조선 전선에 자국 무력을 파견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군수품 수송 계획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당의 전투력과 영향력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민족 해방 투쟁을 비상히 앙양시켰다.

조선 전쟁은 우선 약소 민족의 《해방자》, 《원조자》로 오래 동안 가장해 온 미제의 정체를 백일 하에 드러나게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래 동안 약소 민족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권리 옹호 투쟁이라는 《고상한 리념》의 뒤에 숨어서 세계 대전에 개입하며 민족 해방 전쟁에 간섭함으로써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려 하였다. 다른 제국주의 렬강들에 의하여 세계 분할이 이미 끝난 시기에 본격적인 침략의 길에 들어선 그들은 처음부터 식민지 인민들의 반항과 함께 구식민주의자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여 부득불 이러한 수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이 수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일찌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였다.

제 2 차 대전 말기와 전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반파쑈 련합 쁠럭의 《참가자》, 반파쑈 전쟁의 《승리자》라는 인기 있는 간판을 리용하여 이러한 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가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미제에 대한 환상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 널리 전파되였다.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가 식민주의의 아성으로 등장한 조건하에서 그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한 민족적 해방도 달성할 수 없으며 설사 형식적 독립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중병에 걸린 젖먹이와 같은 형편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사실 상 전후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률빈을 비롯한 동남 아세아 일련의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미제에 대한 환상으로 인하여 심중한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 침공은 미제야말로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현대 노예 소유자이며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쓴 신식민주의 두목이며, 구식민주의자들을 훨씬 릉가하는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악랄한 교살자이, 식민지 인민들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조선 전쟁은 유엔도 미제의 거수기에 의해 롱락되는 한에 있어서는 민족의 분렬과 식민지 노예화를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놓았다.

우리 인민의 투쟁과 승리는 또한 미제의 전능에 관한 《신화》를 깨여 버렸으며 야수적인 식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의 패배가 다만 조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기타 지역의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대한 침략 전쟁 수행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리라는 우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집요하게 발악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손에 무장을 들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잔혹해질수록 우리의 수령, 우리 당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사소한 동요와 자만도 없이 발광하는 적들의 약한 고리를 제때에 포착하고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인민 군대와 빨찌산 부대들은 현대적 무기를 우리 나라 지형에 맞게 구사하며 항일 유격 투쟁에서 창조된 전법들을 적용함으로써 현대적 장비의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을 섬멸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분쇄함으로써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불패이며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약소 국가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방해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전 세계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훌륭히 보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전쟁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마음 대로 착취하고 억압하던 시기는 먼 과거로 되였다는 것을 전 세계 인민들 앞에 똑똑히 보여 주었다.》(선집 제 4 권, 458 페지)

조선 전쟁 이후 도처에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며 그것은 더욱 심화 발전되였다.

우선 투쟁의 예봉이 바로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지게 되였는바 이것은 조선 전쟁 이후의 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또한 무장 투쟁 형태가 광범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인 1953년에 큐바 혁명가들이 무장 투쟁의 기치를 들었으며 뒤이어 1954년에는 알제리아 애국자들이 무장 투쟁에 궐기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한 때로부터 10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무장 투쟁은 비단 아세아에서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의 중요한 형태로 전변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이 무장 투쟁의 형태로 심화 발전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로동자, 농민의 각성과 적극성이 제고되였으며 이 투쟁은 반제 반봉건적 민족 민주주의 혁명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조선 전쟁 이후 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련대성이 급격히 강화되고 그들의 반제 반미 투쟁 전선이 형성 공고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 전쟁 이전에는 불과 아세아와

북아프리카 몇 개 나라가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데 불과하였다면 그 후 민족 해방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여 10 년 밖에 안 되는 기간에만도 근 30 여 개 나라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종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열병의 불을 끄기 위한 우리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였다.

조선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대전의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였다.

제 2 차 대전 후 미제가 련'이어 도발한 전쟁 도발 소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선 전쟁에서는 새 세계 대전의 위험성을 직감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도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목소리에는 힘 있게 합류하였다. 조선 전쟁 시기 이 구호는 수억만 세계 인민들을 평화를 위한 투쟁에 단합시키는 강력한 전투적 구호로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 데 대한 전 세계 인민들의 념원에 대하여 전쟁 확대로써 대답하였다. 그들은 조선 전쟁 시기 자기 《동료배》들에게 군비 경쟁을 강요했으며 특히 패망한 일본과 서부 독일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평화 옹호 인민들은 미제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평화를 위한 투쟁의 예봉이 급속히 미제에 돌려지게 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의 승리는 인민들이 《평화》에 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념불에 기만 당하지 않고 전 세계 반제 력량을 강화하며 굳게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해서 견결히 투쟁한다면 그들의 새 전쟁 도발 음모를 능히 분쇄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할 수 있으며 인류의 진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조선 전쟁 이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다.

오늘 평화 옹호 운동은 수억만 인민들을 결속시키는 전 세계적인 반미 반제 투쟁으로 확고히 전변되고 있다.

* *

3 년간의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했다. 우리의 거리와 마을은 재'더미로 화했으며 우리의 매 가정도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겪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피해의 손실로 인하여 우리 인민이 다시는 일어 나지 못할 것이며 세계 인민은 전쟁의 공포증에 떨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오산하였다. 제국주의자들 앞에 굽실거리는 현대 수정주의자들, 전쟁 공포증에 사로잡힌 몇몇 속물들이나 놀래울 수 있었을 지언정 압박과 착취를 제거하며 항구한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 대중은 놀래울 수 없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의 경험은 력사상의 온갖 위기, 인간 생활의

온갖 재난과 온갖 격변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며 좌절시키나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교양하며 단련한다.** 그 뿐더러 대체로 전 세계 력사를 보면 이 후자의 수효와 힘은 이러저러한 국가가 몰락하고 멸망한 개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의 그것보다 많았다.》(전집 제 21 권, 243 페지)

3 년간의 전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은 천리마의 기세로 전쟁의 재'더미 우에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고 북반부 혁명 기지를 철옹성 같이 다져 놓았다. 남반부에서도 식민지 통치 지반은 밑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으며 인민들의 반미 투쟁 기세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도 사회주의와 평화의 력량은 10 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은 인민들의 거세찬 항쟁에 부딪쳐 갈팡질팡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절대로 일으키지 못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는 우리 힘이 약하다고만 보면 반드시 새 전쟁을 도발할 것이며 그가 최후 멸망에 직면할수록 모험적인 발악을 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싸워 이긴 그 기세, 그 투지로써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고 원쑤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불의의 공격에 대해서는 섬멸적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수정주의와 양풍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자립, 자생, 자결, 자위의 혁명 정신을 더욱더 발휘할 것이며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완수함으로써 조국 해방 전쟁에서 쌓아 올린 금자탑을 더욱 빛낼 것이며 세계 인민의 반미 반제 혁명 투쟁에서 지닌 력사적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평화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현 준

1

현 시기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진정한 평화의 쟁취를 자기의 리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사로 되고 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력사적 사명, 그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을 청산하고 전 세계에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낡은 사회의 질곡으로부터의 근로 대중의 해방은 심각한 사회 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혁명이 비평화적 형태를 띠느냐 평화적 형태를 띠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착취 계급, 반동 세력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이 비평화적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력사의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 나려 하지 않는 반동 계급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자기의 리상인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의 요구로부터 창조적 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열렬히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결코 평화 일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근로 대중의 근본적 리익이 침범 당하지 않으며 모든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요구한다. 근로 인민의 근본적 리익에 배치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욕을 조장시키는 《평화》는 본질에 있어서 평화가 아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은 제국주의이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제국주의는 전쟁의 근원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제국주의 정책의 연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항구적인 평화는 전쟁을 산생시키며 전쟁에 리해 관계를 가지는 제국주의 제도를 세계에서 매장하고 지구 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반제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제국주의를 지구 상에서 청산하고 항구한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며 다른 편으로는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사회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 개의 전선으로서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

세계 각국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각국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쌓아 놓은 침략적 보루들과 후방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력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전쟁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결코 평화 투쟁과 대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을 강력히 추진시킨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족을 얽어 맴으로써 혁명 투쟁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준다.

그러므로 현 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이 두 전선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강화하는 것은 장구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길이며 나아가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을 제국주의의 철쇄로부터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을 각국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 및 민족 해방 투쟁과 대립시키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존》해야지 그를 반대하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곧 세계 대전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류 사회의 존재 그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현 시기에 있어서 세계 혁명은 세계 대전과 수천만 인민의 소멸을 의미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배신자들의 이와 같은 비렬한 주장은 핵 무기의 공포증으로써 인민 대중을 위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 정책에 대중을 사상적으로 굴복케 하며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 투쟁을 포기케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억압 받고 착취 받는 수천 수억만의 인민들과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이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 투쟁을 그만 두고 영원히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암흑의 세계에서 노예의 처지를 감수하라는 설교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핵 무기의 출현은 결코 력사의 전진을 저지시킬 수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무마할 수 없으며 계

릅 투쟁의 법칙을 변경시킬 수 없다.

각국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세계의 광범한 반제 력량이 단합되면 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대전 도발 정책을 막을 수 있으며 핵 공갈 정책도 파탄시킬 수 있다.

력사적 경험과 현실은 그것을 확증하여 준다. 제 2 차 대전 후 여러 지역에서 인민들의 반제 진출이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핵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과 혁명 투쟁은 핵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미제 침략자들에게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 패배케 하였으며 소위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 없이 파산시켰다.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승리는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동과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막대한 기여로 되였으며 반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인민들에게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남부 월남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 타오스 인민의 투쟁 기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완강한 반제 투쟁은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를 평화와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킴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핵 무기의 출현을 론거로 삼으면서 온갖 혁명 전쟁과 민족 해방 전쟁이 세계 대전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하는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전혀 무근거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전쟁 도발을 두려워 혁명 투쟁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포기하는 길로 나간다면 제국주의 세력은 더욱 득세하여 전쟁 도발에 날뛸 것이며 세계 평화는 그 만큼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이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 지배층들은 파산 당한 선행자들의 《힘》의 정책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더욱 교활하고 모험적인 반혁명적 세계 전략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봉쇄》, 《제거》하며 광범한 《중간 지대》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준비하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각종 정치적 기만, 《원조》 등 수단을 통하여 신식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미제 지배층들은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과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적극 재생 강화함으로써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 근원지들을 조성하고 있다.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며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는 일방 각종 파괴 활동을 강화하며 《평화 전략》을 표방하면서 이 나라들에서 《평화적 진화》 과정을 추진시킴으로써 자본주의를 재생시키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월남, 타오스에서 더욱더 무력 간섭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조선, 대만 등 도처에서 전쟁 소동에 광분하고 있으며 인도의 반동 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아세아 침략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 제국주의가 세계 평화의 교살자이며 세계 반동의 중심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지주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 인민의 원쑤라는 것,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음흉하고 흉악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현 시기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화 투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의 구체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 일반적인, 추상적인 구호는 사실 상 무의미하다. 평화에 대한 요란스러운 말만으로써는 평화를 수호할 수 없다.

제국주의 전쟁광들이 침략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을 때,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교살하려고 날뛰고 있을 때, 수천 수억만의 근로자들이 독점 자본의 희생물로 되고 있을 때 전쟁의 도발자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하지 않는 추상적인 평화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인민들에 대한 우롱과 기만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2

현 시기 국제 정세 발전은 세계 평화와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행동을 저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이 실제적 가능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인민 대중을 단호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그것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프로레타리아 당들이 조성된 현실적 가능성에 의거하여 제국주의 전쟁 세력들의 책동을 파탄시키며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정확한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하여 그들을 반제 투쟁에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는가 못 하는가에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

씀하였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모든 평화 력량을 튼튼히 결속하고 온갖 투쟁 방법을 배합하여 도처에서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줌으로써만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고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광범한 반제국주의 력량을 단합시키며 제국주의가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온갖 형태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

오늘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력량에는 무엇보다도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 력량, 자본의 기반을 반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광범한 로동 계급의 진출, 세계의 광대한 지역의 평화 옹호 력량 등이 포함된다.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에 대처하여 자기의 방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자기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반제 평화 투쟁의 선두에 서서 자기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운동에 극히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평화 투쟁의 선두에 서서 광범한 평화 애호 력량과 더불어 침략자들의 일거 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침략자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폭로 규탄하며 그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 그 어떤 흉악한 전쟁 세력도 감히 함부로 도발 행동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오늘 미제 침략 계층들이 핵 무기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 광범한 반제 력량의 단결을 그처럼 두려워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소동이 로골화되고 그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이 때, 사회주의 진영을 포함한 광범한 반제 력량을 결속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때, 이 대렬을 약화시키며 분렬시키는 사소한 행동도 허용될 수 없으며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원쑤들의 면전에서 반제 투쟁 대렬을 분렬하려는 책동이 광범한 인민 대중의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력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 범위를 축소시키고 그를 약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대전 후 이 지역 인민들의 완강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광범한 후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후방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쫓겨 날 때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 세계 평화 유지의 강력한 요인으로 보면서 그를 적극 지지 원조하는 것을 시종일관 자기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제국주의 세력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광범하고도 완강한 진출은 현 시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독점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로동 계급의 력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동 세력들이 감히 마음 대로 전쟁 도발 행동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국가 내 맑스-레닌주의 당들 앞에는 제국주의 반동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전쟁 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며 그에 광범한 근로 대중을 궐기시킬 데 대한 문제가 긴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대담하게 대중의 선두에 서서 이 투쟁을 지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 옹호 운동을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대렬을 분렬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들 내부의 모순을 리용하는 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물론 제국주의자들과 회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담은 반드시 회담 밖에서의 단호한 투쟁에 기초해야 하며 정확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무원칙한 타협은 평화의 위업을 더욱 위태롭게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욕을 조장시킬 뿐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혁명적 원칙,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놓고 적들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현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준동에 대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높이고 평화의 적들의 온갖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세계 평화를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및 정신적 준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에 있을 때 적들이 감히 평화에 도전해 나서지 못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서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며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조국을 철벽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원쑤들의 준동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으며 극동과 세계의 평화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인민 대중을 동원하는데 있다

림 종 봉

사회적 제반 운동, 력사 창조의 제반 과정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 대중의 혁명적 력량, 창조적 력량의 동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이 혁명 투쟁의 전략 전술을 작성함에 있어서 제 1 차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 력사는 생산 방식의 교체의 력사이며, 물질적 부의 생산자의 력사이며, 생산 과정의 기본 력량인 근로 대중의 력사이며, 인민의 력사이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력량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힘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세상에 로동자, 농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기선도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로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선집 제 6 권, 112 페지)

력사 상에는 온 나라를 황폐화한 그러한 전쟁이 한두 번만 있지 않았다. 전쟁은 도시와 농촌, 가축과 재산 및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문화재들을 수 많이 파괴하여 버렸다.

그러나 침략군은 오히려 유린된 나라 인민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물러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인민은 페허 속에서도 살아 남았다. 그리고 그 인민은 또다시 자체 로력에 의하여 빈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냈고 생산력을 발전시켰으며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새로운 문화 보물고를 창조하였다.

극히 가혹한 계급적 압박을 받으며 야수적 착취와 결핍과 곤궁, 정치적 및 정신적 압박에 억눌리여 살았다 하더라도 수천 수백만의 근로자들은 역시 력사를 창조하였고 추동시켰다.

물론 대중의 생활 처지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로 대중에 대한 암흑과 굴욕이 지배하는 그러한 력사적 시기에는 대중은 오래 동안 꿈꾸며 잠자며 자기들의 창조적 능력을 옳게 발양시킬 수 없었다. 《그 때에 력사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완만히 걸어 갈 수 밖에 없었다.》(레닌 전집 제 27 권, 192 페지)

그러나 력사 상에는 대중이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진시킨 시기들도 있였다. 그리고 그 때에는 력사의 행정은 비교할 수 없이 촉진되였다. 그러한 시기는 위대한 혁명과 해방 투쟁의 시기이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은 력사 발전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기적 잠과 꿈 속에서 헤매이던 아세아, 아프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포성에 의하여 각성되였으며 혁명 투쟁에로 일떠섰다.

이것은 이 지대에서 위대한 전진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잠을 깬 조선 인민도 일제의 잔인 무도한 총검의 폭정을 반대하여 단호히 해방 투쟁에 나섰다. 조선 인민은 3.1의 력사적 봉기와 20 년대의 곡절 많은 투쟁을 거쳤으며, 1930 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강대한 일제의 침략 무력을 타격 격파하는 간고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의 패망을 촉진시키고 해방의 력사를 크게 앞당겼다.

해방된 조선 인민은 미제가 도발한 3 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세계에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그들로 하여금 판문점에서 즉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 력사적 승리는 자유와 해방의 맛을 감수한 인민의 위대한 힘과 무비의 영웅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력사는 이렇듯 인민 대중이 혁명 투쟁에 궐기한 시기에 있어서 더욱 촉진되였고 력사적 비약이 그들의 창조력에 의해서, 그들의 영웅주의에 의해서 이룩되고 있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을 철저히 믿고 그들에게 의거함으로써만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자기의 모든 전략 전술의 작성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력량을 옳게 조직하고 발동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 투쟁에서 그의 근본 력량으로서의 인민 대중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인민 대중을 발동하는 사업을 차요시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문제, 식민지 인민들이 해방을 달성하는 문제 등 사회 생활과 사회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들까지도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과 떼여서 고찰하려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무기 더우기 핵 무기가 아니라 대중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력사에서 대중의 역할에 관한 력사적 유물론의 개념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것이다.》라고까지 떠들고 있다.

물론 전쟁에서 무기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핵 무기, 로케트 무기들이 고도로 발전한 현 시기에 있어서 무기의 역할을 옳게 평가하는 것은 심중한 문제이다. 무기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공을 물리침에 있어서 좌경 모험주의적 오유를 범할 수 있으며 또 무기의 역할을 너무 과대 평가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무기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성과 전쟁 공포증에서 허덕이는 무맥한 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우리는 무기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인민 대중의 역할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간주한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고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결국 대중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들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우연한 동기에 의하여 눌리여지는 핵 장치의 스위치에 대한 작용이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의 참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식으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간주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그것을 계급적 견지에서 보며 정치의 연장으로써만 고찰한다. 다르게는 될 수 없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급들에 의하여,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전쟁이 진행되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레닌 전집 제 23 권, 29~32 페지 참조)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약소 국가 인민들의 해방 문제를 적들과의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인민 대중의 투쟁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속국의 몇몇 대표가 가서 종주국의 상전에게 잘 보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돌아 서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립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제리아에서의 정화와 같은 알제리아 인민의 투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도 단순히 회담의 성공, 특히는 드 골의 개인적인 《비범한 수법》의 결과로 설명하려 한다.

이것은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다.

수정주의자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해방된 모든 인민들에 대하여 이와 류사한 평가를 내리려고 하며 큰 나라 수뇌자들의 회담으로써, 혹은 유엔의 협상 무대를 통해서 식민지 인민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 해방 혁명의 최근 력사야말로 인민 대중의 력량은 혁명의 결정적 력량이며, 무장한 침략 세력은 무장한 인민의 혁명 력량에 의해서만 타승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력사적 론거장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 과연 알제리아에 현대적 군사 기술로 장비한 60만의 군대와 20만의 경찰을 투입하여 7 년 여에 걸쳐 발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알제리아 인민의 항쟁의 칼에 맞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란서 제국주의자들과 드 골이 그런 《비범한 수법》의 《배려》를 베풀 수 있었단 말인가?

인민들의 해방을 유엔의 결정과 결부시키려는 것은 더욱 허황한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이 미제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빌고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에서의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하였고 16 개국 무력 침략자들을 끌어 들였다.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빌어 콩고 인민의 해방 투쟁을 말살하였으며 세계 도처에서 약소 국가 인민들에 대한 헌병 노릇을 하고 있다.

유엔의 결정이 그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해서 전취된 혁명의 전취물이 협상의 형식을 빌어 실현되였거나 혹은 침략자들의 《선의》의 기만극으로 전도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조선 전쟁도 회담의 결과로 끝난 것이 아닌가고. 물론 회담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한다: 미국놈들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항전에 굴복하여 정전 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정전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맑스주의자들은 회담의 의의를 무시하지 않으며 그것을 혁명 투쟁에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리용한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적인 전략 전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회담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 호상 간의 모순을 리용할 수 있고 그들의 침략적 의도의 진면모를 폭로 분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문제들에서 일정한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담의 역할은 인민 대중의 투쟁에 비하면 기껏해야 그 투쟁이 안받침된(내용에 대한) 형식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담의 의의를 평가한다.

그런데 회담의 방법을 절대시하며 이것만을 선전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고찰한다면 민족 해방 혁명의 동력은 인민 대중인 것이 아니라, 계급 투쟁인 것이 아니라 종주국의 집권자들이며 그들과의 타협이며 협조이다. 그런 식으로 고찰한다면 근로 대중의 운명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침략의 거두들의 손아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 식으로 고찰한다면 인민 대중은 력사 밖에 놓여 있는 무맥한 무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된, 환상적인 《설명》으로 되고 말 것이다. 사회와 력사의 발전을 종국적으로 규정하는 힘은 인민 대중이다. 력사 발전, 혁명 승리의 동력으로서의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시대에 와서 참으로 충분히 발양되며 개화된다.

《력사적 행동이 근본적인 것일수록 그 행동의 주인인 대중의 범위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 2 권, 102 페지)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레닌은 맑스주의의 가장 심오한 력사 철학적 명제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혁명적 변혁이 심각화되면 될수록 광범한 대중들이 거기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명제는 력사에서 가장 근본적 변혁의 시기로 되는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민 대중의 역할을 옳게 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의 새 생활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무비의 영웅성과 창조적 로력을 과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 받았으며 더우기는 3 년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인하여 페허로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의 원쑤들은 《북조선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너무 일렀다. 우리 인민은 페허 속에서 일떠섰을 뿐만 아니라 온갖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 냈고 짧은 력사적 기간에 위대한 혁명적 변혁들을 이룩하였다.

그처럼 불리한 조건 하에서, 그처럼 참혹한 페허 속에서, 남북으로 분렬된

조건 하에서 특히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한 정세 하에서, 내외의 온갖 원쑤들이 우리 내부에 분렬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여 그처럼 위대한 변혁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가? 세인을 놀라게 한 위대한 전 인민적, 대중적인 천리마 운동이 그러한 온갖 불리한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 날 수 있었던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의 확고 부동한 통일,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 열의—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의 근저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립장에서는 이 사실이 잘 납득되지 않는 하나의 우연적인 《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확실히 기적이기는 하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기적이다.

이러한 기적을 달성할 수 있은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이 시대의 변혁에 따라 더욱 각성되고 있는 우리의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데 있다.

우리 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중을 혁명적 고조에로 불러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천리마 운동의 단서로 된 1956년 12월 전원 회의에서 취하여진 조치의 하나만 보더라도 명백해질 것이다.

전원 회의는 그의 결정 관철에서 대중과 토의하고 그들의 힘을 옳게 발동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당과 정부의 지도 일' 군들이 친히 군중 속에 들어 가 당시의 정세와 당의 의도를 알려 주고 대중의 창조적 지혜, 열성을 조직 계발하였다.

대중이 당의 사상을 자각하고 일떠선 결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은 오히려 천리마의 위대한 속도를 내게 되였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 관철의 제반 경험은, 인민 대중이 사회와 력사 발전의 결정적 동력이라는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의 정당성을 확고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혁명 투쟁에서 인민 대중을 믿고 그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계발시킨다면 그 어떤 간고한 조건에서라도 그를 능히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직한 담보를 주고 있다.

생활 연구와 작가 수업

리 기 영

작가를 《인간 정신의 기사》라고 한다. 가령 기계 기사는 보다 능률적인 기계를 만들며 광산 기사는 수천척 지심 속에 묻힌 광맥을 찾아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작가는 현실 생활을 재현하는—각양한 타잎의 산 인간들의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인간학》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다양하고도 풍부한 인민 생활의 화폭은 창작의 기본 소재이며 언어는 그의 기본 수단으로 된다.

작가들 앞에는 항상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서는데 그러니 만큼 글을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는 달라서 매개 작품이 모두 새것으로 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매번 글을 새로 쓰는 것처럼 어려웁대서 하는 말이다.

가령 공장에서는 똑 같은 물건을 많이 만들면 그것이 증산으로 되고 증산은 할수록 좋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똑 같은 작품을 절대로 《증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요, 류형에 빠지거나 남의 작품을 모방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번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해야 하겠으니 정말로 창작 사업은 지극히 어렵다고 하겠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렵고도 영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우리 작가들이 누구보다도 우선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싸우는 인민이 요구하는 위대한 무기인 문학 예술의 창조자이며 투사라고 하면서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어찌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가 어찌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위대한 작가 예술가들은 위대한 애국자들이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투사들이였다.》(선집 제 3 권, 1953년 판, 301~302 페지)라고 말씀하였다.

《글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이 글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글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글은 무엇 때문에 쓰는가?

글을 쓰는 목적은 혁명에 리익을 주고 인민을 교양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글 쓰는 사람 자신의 계급적 립장이 투철하지 못하고 생활이 불순하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교양할 수 있겠는가?

비근한 례로 부르죠아 사회에서 출판되는 흥미 본위의 대중 소설이나 대중 독물을 들어 보자! 말초 신경을 자극하

고 저렬한 통속적 취미만을 추구하려는 소위 대중 극물을 읽을 때는 혹시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읽고 나서 책장을 덮으면 아무 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문예 작품 뿐만 아니라 조형 예술이나 음악, 무용도 마찬가지다.

예술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의 정신— 호소성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사상성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작가에게는 우선 생활 태도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생활이 진실하지 못 하면 사람됨이 성실치 못 하며 그런 사람의 글은 글 역시 진실할 수가 없다. 문제는 우리 작가들이 언제나 로동 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사고한다면 생활 역시 성실해질 것이다.

성실한 생활, 이는 작가들이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열'쇠라고 하겠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활에 깊이 파고 들어 가야 한다.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글도 현실과 유리되여서는 쓸 수 없다.

생활을 깊이 파악한다는 것은 시대와 보조를 맞추는 동시대인이 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시대의 가장 선진적 사상의 수준에까지 올라 서서 인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전진해야 한다.

작가들은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들의 성격, 사상, 감정, 지향 등이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할 것은 물론, 그들의 생활 습성과 풍속, 례절, 말들을 잘 알아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며 그들의 구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경험과 생활에 대한 지식이 그 어떤 우연한 《창작 휴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려행하여 직접 보고 들으며 현실 생활을 연구하면서 작품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줄 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다.

허나 다만 이렇게 얻은 자료는 피상적이여서 왕왕 쓸모 없는 것으로 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요는 작가 자신이 생산 활동에 직접 참가하며 생활에 깊이 침투하며 천리마 기수들의 내면 세계를 몸소 체험할 때에만 생활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고 심장으로 느끼며 리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 대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서로 흉금을 터놓고 토론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게 될 때에만 무엇을 써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다.

생활이 진실하고 생활 체험이 풍부하며 생활에 깊이 침투한 작가는 그 만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생활의 빈곤은 사색의 빈곤을 가져 오며 사색의 빈곤은 결국 형상 묘사의 빈곤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나의 창작 경험을 놓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농촌에서 생장하였다는 것과 또한 소년 시절에 몇 해 동안의 방랑 생활을 통하여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는데 그 절절한 심정을 나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반영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민촌》, 《제지 공장촌》, 《봄》 등 나의 일련의 작품들에는 내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기타의 모든 작품들에도 나 자신이 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것, 보고 들은 것, 느낀 것들이 반영되여 있다.

《고향》의 김 선달이라든가 《두만강》의 리 춘실과 같은 인물들은 당시 우리 농촌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타입들이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바로잡기만 하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게 된다. 만약 내가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과 전혀 상종을 못 했다면 나는 이런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화하지 못 했을 것이다.

나의 다른 작품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장편 소설 《고향》은 나의 고향에 사는 주인공들과 그 자연의 배경이 한데 어울려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만큼 내가 자라난 고향에 대하여 쓰기는 수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 묘사에 있어서나 인물들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나 별로 걸리는 것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나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군 북면 중엄리의 내가 살던 집의 구조와 주위 환경을 손'금 보듯이 훤하게 기억하고 있다. 비단 나의 집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의 영상이 그와 같이 눈에 선하다.

나를 아는 독자들은 나를 농민 작가라고 지목들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별로 이의가 없다. 말하자면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농민 작가의 한 사람이 된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무슨 농민 작가의 《전매 특허》를 맡은 것도 아니요, 농촌에 특별한 취미를 가져서 농촌 소설만 쓰려고 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내가 원래 농촌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농민들과 같이 살며 농촌에서 자라난 고로 농민들의 생활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농촌물을 많이 쓰게 된 것이다.

정말 그렇다. 모르는 것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나에게 《제지 공장촌》은 어떻게 썼느냐? 하고 질문할 독자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에 대한 대답도 나는 똑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 어느 해 봄에 나는 서울 자하문 밖에 있는 제지 공장촌으로 가서 그 해 가을까지 종이를 뜨는 로동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였는데 그 경험이 《제지 공장촌》을 쓰게끔 하였다. 그 작품에 나오는 《샌님》의 원형이 바로 나 자신이다.

만일 그 때 내가 그들—로동자들의 생활 체험을 가지지 못 하였더라면 나는 그 작품을 쓰지 못 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나는 《작가의 학교는 생활이다》라는 결론을 짓게 된다.

작가는 이 세상의 억천 만사를 다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생활의 모든 측면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사람의 한평생 동안에 세상 만사를 다 겪어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 수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또한 남이 체험한 것을 배우며 연구하여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체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하며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취재 활동이다. 취재를 잘 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정력이 요구된다. 사실 창작을 위한 취재는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 즉 매일 우리가 세수를 하고 밥을 먹듯이 날마다 사물과 현실을 주의 깊이 관찰하며 출판물들에서 자료를 발취하며 지어는

아이들이 놀면서 주고 받는 말과 늙은이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나 수작하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는 생활을 알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 자체에서 꾸준히 배우며 사회 발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과학과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며 각 방면에 걸치는 해박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정력적 활동이 없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 생활을 따라 갈 수 없으며 더구나 그에 앞서 장래를 예견하지는 못 할 것이다.

사회주의 문학 창작에서 가장 기본적 요구로 되는 것은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혁명적 발전 과정에서 묘사하며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문학은 력사나 지리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산 인간—숨 쉬며 일하며 사색하는 생동한 성격을 가진 인간 형상을 통하여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곧 문예 작품이다.

인간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류의하여야 할 점은 그것을 어떤 규범화된 정치적 표징의 《설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풍기는 진실에 의거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 세계 속에서, 전체적이며 세태적인 정황 속에서 매개 인간의 성격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일반화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무슨 신비한 것은 아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 심장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 즉 실재하는 인간들의 원형에 의거하여 성격을 창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진실하고 실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든 작가가 반드시 자기의 생활 권내에 속하는 현실만을 묘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자기의 구체적 체험에 기초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그 성격들이 우리들에게 보다 친숙한 현상으로 안겨 올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들은 왕왕 작품이 재미가 없어서 읽기가 지루하다는 평판을 듣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리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 내 생각에는 작품에 등장한 인간들의 성격 묘사가 잘 되지 못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첫째로 작품의 구성이 잘 째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섬세한 묘사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치밀한 묘사를 하지 않고 건성건성 스쳐 버린 것은 소설 맛이 나지 않는다.

소설은 정말로 소설(小說)이 되여야 할 것이다. 섬세한 묘사가 없이는 인물들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살릴 수 없다. 사실 인물 초상의 묘사를 등한히 하여 구체적 정황 속에서 그의 성격을 부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인물이 남자인지 녀자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렵고 성명만 바꾸면 그가 어느 외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다면 그런 소설을 독자들이 어떻게 재미 있게 읽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섬세한 묘사를 한다고 해서 자질구레한 것을 생각 나는 대로 주어 써 놓아서는 안 된다. 사건과 현상들을 늘어 놓은 기록주의는 결국 생활의 진실을 가리우며 인간 성격을 왜소하게 만든다.

문학은 현실 그 자체의 기계적 반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과 사실을 낳는 인간, 심장이 고동치는 산 인간의 형상을 통한 반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 묘사는 어디까지나 주인공들의 내면 세계를 부각하는 데 복종되여야 하며 엄밀히 취사 선택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 현실 속에서 시대 사상을 반영하는 전형적 사실들을 골라 내여야 하며 무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생활에 대한 긍정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심장을 불태울 때에야만 작가는 보석 같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글은 머리로 쓸 것이 아니라 심장의 끓는 피로 써야 한다. 마치 철광석이 용광로를 통하여 쇠'물로 녹아 내리는 것처럼!

작가 수업에서 언어에 대한 학습은 가장 귀중한 자리의 하나를 차지한다. 그것은 문학이 언어 예술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문학의 첫째 요소이며 문학의 기본 도구이다.

만약 작가가 아무리 본질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적으로 묘사할 수 없다면 문학 작품은 생산되지 못 할 것이다.

언어는 모든 사실과 온갖 사상의 의상과 같다 할가? 그러나 사실의 배후에는 그의 사회적 의의가 숨어 있으며 매개 사상의 배후에는 어찌하여 이러저러한 사상이 바로 그러하며 달리는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들 속에 숨어 있는 사회 생활의 의의를 완전하고 명료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은 명료하고 정확한 어휘를 골라 써야 한다.

예술은 근사성, 불명료성과 표현 부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확한 언어는 한 가지 사실과 한 가지 사상에는 단 하나의 말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유일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일어를 찾아 내는 것은 작가의 가장 힘드는 사업이며 거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학습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 작가들은 언어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풍부한 언어의 밑천-표준어와 사투리, 격언과 속담들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

정 다산은 글 쓰는 것을 나무 심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였다. 《문장은 화초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 심는 사람은 그 뿌리를 북돋아 주며 그 줄거리를 편히 하여 줄 뿐이다. 그 다음에야 진액이 오르고 지엽이 뻗어서 꽃이 스스로 피는 것이니 꽃을 어찌 밖에서 구할 것인가》라고.

그는 또 말하기를 《문학이란 무엇인가? 학식이 속에 쌓인 다음에 문장이 밖으로 발표되는 것이 마치 고량 진미가 장위에 들어 간 다음에 기름이 피부에 나타나며 좋은 술이 입에 들어 간 다음에 붉은 빛이 얼굴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 문장을 어찌 밖으로부터 가져 올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학식과 사상을 본원적으로 준비하며 축적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과 남

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절실한 필요를 느낀 연후에 자기 의사를 자기 글로 표현하면 비로소 진실성 있고 가치 있고 정채가 풍기는 훌륭한 문장으로 되여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추고를 해야 한다.

추고는 작가의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의 하나이다. 그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구상을 한 후에 초고를 쓸 때에는 생각 나는 대로 우선 대충 써 놓는다. 이것을 비유해 말한다면 목수가 재목의 걸목을 치는 것과 같다 할가? 톱으로 아래 우를 자르고 도끼로 결가지를 다듬어서 통나무 목재를 만들어 놓는 셈이다. 정작 널판자를 켜고 대패질을 하고 구멍을 뚫고 홈을 파서 맞추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하게 된다.

작품의 추고 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원래 추고(推敲)란 어휘 자체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한시(漢詩)에서 문을 민다(推)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문을 두드린다(敲)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점도록 생각했다해서 《추고》란 말이 생겼다 한다. 그 만큼 추고 과정은 정말 어려워서 옛날 시인들은 글'자 하나를 고치는 데 며칠, 몇 달씩 애를 쓰고 있었으며 탁월한 작가들도 장편 소설 같은 것을 무려 수십 번씩 고쳐서 개작하는 신고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하치 않은 나 자신의 경험을 보더라도 추고를 할 때는 정말로 골을 싸매고 모든 정력을 그 한 일에 바쳐야 했다.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고치고 또 고쳐 쓰고 하기를 무려 수십 번 해도 종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때는 화가 나서 붓대를 동댕이치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는 당치 않은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였다.

하나 이 창작의 고민을 겪지 않고서는 예술품이 나올 수 없다. 예술은 《고민의 상징》이라고도 말하지만 과연 창작의 고심을 겪지 않고서는 어떤 작가라도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작가는 모름지기 남이 모르는 창작적 고민과 불과 같은 정열로 자기 사업에 일심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의 길은 결코 탄탄한 대로가 아니다. 도리여 그것은 가시덤불 속을 헤치고 나가는 것과 같다 할는지…? 아니 그보다도 태산 준령을 올라 가는 험로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이것은 작가의 아주 방대하고 완강한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의 총화이다.

생각해 보라! 《인간 정신의 기사》가 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른 기사들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기사》인 작가는 그야말로 마치 허공에서 바람을 잡고 그림자를 잡는 것 같은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의 정신 세계를 대상하느니 만큼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학자나 기술자가 진리를

발견하고 기술적 발명을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로심 초사(勞心焦思)를 하며 불면 불휴(不眠 不休)의 투쟁을 계속하는가!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이 제 1 호 용광로를 복구할 때 령하 20 도 이하의 설한풍을 무릅쓰고 수십 길 높이에서 밤에 낮을 이어 영웅적 투쟁을 계속한 결과 마침내 승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감탄부터 하는 동시에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도 마땅히 이와 같은 정열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진지한 노력과 고심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 당의 작가, 인민의 작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불타는 작가적 정열을 식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 할 때는 범용한 작가로 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치기로 되고 말 것이다.

일상적으로 되는 심오한 생활 연구,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생활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긍정, 그리고 예술적 기교의 부단한 련마—이 험산 준령을 극복하는 완강한 투쟁이 곧 작가로 자라나며 문학으로써 당에 복무하는 길이다. 나는 문학의 길이 태산 준령의 험로와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산에 높이 올라 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상쾌해진다. 작가도 그와 같은 등산가의 희열을 창작에서 느낄 수 있다! 성과작을 내놓는게 바로 그것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조국의 붉은 문화의 화단을 가꾸는 원예사들이며 당의 붉은 사상 전사라는 높은 자각을 간직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의 붉은 작가들이다.

사회주의적 로동 계급의 문학-인민문학의 작가들은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 굳건히 서서 현실 세계를 보며 체험하며 들끓는 정열을 창작 사업에 바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여기서 작가의 관점과 립장과 세계관이 문제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 서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세계관은 작가의 눈이다.

오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작가들만이 축적된 생활 체험과 련마된 예술적 기교를 총 동원하여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술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으로 충만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경제 위기

강 영 철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미제 식민지 통치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남조선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파국상의 직접적인 반영인바 이 두 현상은 호상 반작용하면서 계속 확대 심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적 위기는 군사 정변 이후 더욱더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그 심각성은 금년에 들어 서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오늘 서방 출판물들까지도 당면한 남조선 경제 형편에 대하여 《림종에 가까운 경제》라고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사실 상 오늘의 남조선 경제 생활에서 침체와 마비, 파산과 몰락, 기근과 빈곤, 절망과 공포를 빼여 놓고 더 무엇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 *

남조선 경제의 파멸적 상태는 우선 공업 생산의 계속적인 감퇴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년간 남조선 공업은 극도로 위축되였다.

금년도에 들어 서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체의 가동률은 시설 능력의 40% 이하의 수준에로 떨어졌다.

특히 고무, 팔프, 제유, 섬유 등 공업 부문에서는 지어 시설 능력의 20%의 가동률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공업은 지금 전면적인 파산과 몰락 상태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1960년 말 현재로 남조선에는 도합 1만 5,000 여 개의 대 중 소 기업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 기업체들의 50%는 완전 폐업을 하거나 혹은 휴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체들도 불완전 조업 상태에 있다.

여기에 남조선 공업의 심각한 파멸상을 보여 주는 몇 가지 개별적 자료들이 있다.

금년 5월 현재로 경상북도 내 1,887 개의 광구 중 1,573 개(83%)는 폐광 또는 휴광 상태에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 내는 총 551 개의 기업체가 있었는바 그 중 176 개(32%)는 이미 완전 휴업 상태에 들어 갔고 나머지 기업체들도 1 일 조업하고 2 일 휴업하는 극심한 불완전 상태에 있다.

형편은 타 지방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조업 단축과 휴업 상태는 중소 기업에 뿐만 아니라 예속 자본가들

이 경영하는 일련의 대기업체들에까지도 급격히 파급되고 있다.

금년 3월 말 현재로 《대한 제분》, 《삼화 제분》, 《삼양 제분》 등 대기업체들도 원맥 도입의 부진으로 운휴 상태에 들어 갔으며 기타 방직, 제당, 제과 부문에서도 실정은 대동 소이하다.

남조선에서 기업체들의 파산 몰락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1962년 1 년 동안에 3,000 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만으로도 실증되고 있다.

기업체들의 이러한 급진적인 몰락 과정은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다. 벌써 년초의 첫 2 개월 동안에만도 300 여 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였다.

특히 중소 기업은 하갈기에 들어 서면서 전례 없이 혹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민족 공업의 질식과 전면적인 파산은 불가피적으로 공업 생산을 계속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은 국내에 조성된 정치적 혼란과 더욱 강화된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의 후과로 인하여 경제 활동에 혹심한 침체가 계속된 해였다. 그러나 1962년에 있어서의 생산은 이 해에 비하여서도 전반적으로 10%나 감소되였다.

이러한 생산 축감은 금년에 들어 와서도 계속되고 있는바 벌써 금년 첫 3 개월 간의 생산 수준은 작년 동기 간에 비하여 2.6%나 떨어졌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공업 생산 수준은 일제 시기인 1940년에 비하여 40%나 떨어졌다.

기업체들의 몰락과 생산의 급격한 감퇴는 원료, 자금 및 판로에 있어서 더욱 심하여 가는 곤난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년간 계속되는 미국 《원조》의 삭감과 《정부》 외화의 고갈 등으로 원면, 원당, 원맥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수입이 대폭 축소되였다. 이것은 소요되는 주요 원료의 80~95%를 대외 시장에 의거하고 있는 남조선 가공 공업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도에만 하여도 남조선 가공 공업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원자재를 60% 밖에 공급 받지 못 하였으며 금년도 3월 중에는 중소 기업 전체가 소요되는 원자재의 불과 4% 밖에 배당 받지 못 하였다.

또한 원자재의 부족은 그에 대한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물가의 등귀는 필연적으로 자금의 핍박을 가중하며 나아가서 이것은 시중 금리의 인상을 가져 오게 함으로써 전체의 70%가 고리 부채에 얽매여 있는 남조선의 중소 기업을 더욱 위협하게 된다.

미제가 강요하는 《긴축》 정책으로 《정부》의 자금 융자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중소 기업이 원자재 가격은 20~30%로 폭등하고 시중 금리는 4~5%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인상된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미국 소비 상품은 시장을 계속 범람하고 대중의 구매력은 최저선으로 떨어진 조건 하에서 국산품의 실현이란 거의 불가능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이렇듯 남조선 공업이 겪고 있는 현

위기는 원료난, 자금난 및 판로난을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그의 식민지 예속적인 지위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남조선의 농업은 공업 생산보다 더 한심한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상태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농업 생산의 격감으로 전례 없는 식량 위기가 조성되였다.

군사 《정권》이 당한 위기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바로 이 식량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작년도 남조선에서의 알곡 생산은 전후 최저 수준으로서 총 2,381만 석(그중 저류 204만 석)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1937년에 비하면 43%, 1961년에 대비하면 27%의 감수로 된다.

결과 1962~1963 식량 년도의 식량 총 소요량을 3,400만 석으로 타산한다면 금년도 하곡 생산에서 740만 석의 수확을 예견하고도 1,000만 석에 달하는 량곡이 부족하다.

이런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년도 맥류 생산은 지난 겨울의 한해, 금년 봄의 병충해 및 풍수해로 인하여 심한 타격을 받음으로써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 적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약 500만 석(약 70%)의 감수를 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금년도 식량의 절대적 부족량은 총 1,500만 석으로 증대되였으며 군사 《정권》의 식량 계획에 일대 혼란을 가져 왔다.

남조선에는 지금 전대미문의 식량 기근이 도시와 농촌을 휩쓸고 있다.

벌써 작년 12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절량 세대수는 이미 200만 호를 릉가하고 1,000 여만 명에 달하는 절량민들이 아사 지경에서 쑥대, 풀뿌리, 지어 술찌꺼기를 찾아 산과 들과 거리를 헤매다가 그것마저 얻을 길 없을 때에는 집단 자살로서 《해결책》을 구하는 목불 인견의 참상을 빚어 내고 있다.

도시에는 량곡 반입이 두절되고 매점 매석 행위와 암거래가 성행하며 곡가가 급등함으로써 로동자들과 사무원들, 학생 기타 도시 주민들의 생활을 절망적인 상태에 몰아 넣고 있다.

7월 초 현재로 서울을 비롯한 기타 도시들에서 쌀은 석당 9,200 원으로서 년초(3,900 원)에 비하여 약 2.4 배, 5월 초(5,100 원)에 비하여 1.8 배나 폭등하였으며, 보리쌀은 석당 6,800 원으로서 년초(2,300 원)에 비하여 약 3 배, 5월 초(3,400 원)보다는 2 배가 폭등하였고 밀'가루는 포대당 1,000원으로서 년초에 비하여 2.9 배, 5월 초에 비해서는 1.8 배가 각각 폭등하였다.

이리하여 대학들이 문을 닫고 접객업자들이 폐업을 하며 지어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중식을 지참하지 못하는 등 소동이 일어 나고 있다.

이에 겹쳐 지난 6월 남조선 전역을 휩쓴 풍수해로 인하여 10여 만의 리재민을 내고 수만 동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수십만 정보의 농경지를 류실 당함으로써 《전국은 그야말로 아우성의 도가니로, 일대 수라장으로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참상, 지어 미국 선교사들까지도 《최근 력사 상의 최악의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는 남조선의 혹심한 식량 기근은 18 년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 정책의 가장 파국적인 후과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농촌을 혹독하게 략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농업을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 기지화 정책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밑뿌리채 파괴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선인 식량 공급 원천을 틀어 쥐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60만의 고용 군대를 편성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남조선에 만성적인 실업 대군을 조성하여 인적 자원의 상시적인 《보급창》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였다.

미제는 바로 이 목적을 주로 《원조》의 미명 하에 매년 평균 400만~500만 석의 《잉여》 농산물을 남조선 시장에 투매하여 곡가를 계통적으로 폭락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농촌 개발을 위한 투자 의욕을 말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을 파괴하는 음흉한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였다.

매년 1천만 석의 수출 능력을 가진 곡창 지대로 알려졌던 남조선이 오늘에 와서는 년년이 동일한 량의 《잉여》 농산물이 반입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지대로 전변되고 로동 능력자의 3 분의 2의 인구가 실업 및 반 실업 상태에서 로두를 방황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러한 미제의 《잉여》 농산물 투매 정책의 본질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 잡지 《신 사조》 5 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잉여 농산물의 도입은 이와 경쟁적인 관계를 갖는 한국의 농업 생산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일시적인 국내 농산물 부족을 해소하는 데 그쳐야 할 미 잉여 농산물 도입이 결국은 국내 농업을 점차 파괴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만성적인 대외 의존화를 가져 왔다.》

남조선에서 경제 위기는 괴뢰 정부의 재정 상태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미제의 소위 《대한 원조》의 대폭 삭감과 공업의 침체, 식량 기근, 대중 구매력의 저하, 군사비의 증대는 괴뢰 정부의 재정을 절망적인 상태에 몰아 넣었으며 통화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우선 미제의 《원조》 규모 설정여하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파탄되고 있다.

괴뢰 정부 예산은 금년도에 2억 2천만 딸라에 달하는 《원조》의 배정을 예산하여 편성되였다.

그러나 최근 년간 매년 삭감 일로를 걷고 있는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원조》액은 금년도에 군사 《정권》이 타산한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1억 2천 900만 딸라를 벗어 나지 못 함으로써 년초부터 예산 집행 상에는 혼란이 조성되였다.

군사 《정권》은 《외원》 삭감에 따르는 세입 부족을 기본적으로 조세 수탈과 《국유 재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을 예산하고 212억 원의 조세(작년도에 비하여 36% 증대)와 103억 원의 《국유 재산 매각금》의 수입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군사 《정권》의 이러한 책동도 대중의 조세 부담 능력이 저하되고 생산의 침체와 불경기로 인하여 그의 30%도 실현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괴뢰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는 날로 격증되고 있는바 금년도 재정 적자는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며 정부의 부채는 7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집행의 이러한 파탄으로 최근에만 하여도 당초 계획하였던 재정 투융자 예산이 39억 원이나 삭감되여 주요 산업 건설, 철도 건설 등 12 개의 중요 공사들이 중지되였으며 예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풍수해 피해액이 45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 복구 자금은 1억 7천만 원 밖에 지출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절망적인 것은 군사 《정권》의 외화 사정이다.

미국 《원조》의 축감과 식량 기근으로 인한 외미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 보유 외화》의 류출이 증대됨으로써 정부에 《외화》가 거의 완전히 고갈되였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외화 보유액》은 1961년에는 2억 700만 딸라였다면 1963년 6월 30일 현재에는 그의 2 분의 1인 1억 1,000만 딸라 밖에 안 되며 그것마저도 대외 채무와 관련하여 동결 상태에 있으므로 사실 상 외화는 완전히 소진되였다.

군사 《정권》의 재정 적자와 외화의 고갈은 결국 물가를 폭등시키며 인플레의 앙진을 촉진시키고 있다.

금년 상반 년간에만 하여도 통화량은 1961년 5월에 비하여 39 %나 팽창되였으며 화폐 가치는 폭락되여 1 년 전의 《화폐 개혁》에 의하여 10:1로 교환한 신화폐가 구화의 액면 가치로 환원되다싶이 되였으며 물가는 최근 반 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30~40%나 폭등하고 있다.

최근 미제는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 경제적 난관을 리용하여 또다시 환률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남조선 경제 생활 전반, 특히 물가 체계에 새로운 폭발적 위기와 혼란이 조성될 것은 명백하다.

조성된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인민 생활은 도탄에 빠졌으며 사회악은 날을 따라 격증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는 조건 하에서 《임금 동결령》을 강행함으로써 1961~1962년 기간에 도시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20%나 저하되였다.

이리하여 인민 대중의 구매력은 최저 한도로 저하되였는바 그 정도는 상품 수입이 축소되고 국내 생산은 계속 감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통 부문에 상품 체화량은 금년 3월 현재 작년 동기의 2 배에 달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인민 대중의 생활난과 사회 경제 생활의 혼란은 사회악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정변》 후 군사 《정권》은 부패, 구악 일소와 사회악의 제거에 대하여 떠들었으나 오히려 그러한 고질적 현상은 더욱 우심하여졌을 뿐이다.

례하면 밀수 사건은 1962 년도에 적발한 것만 하여도 1961 년도의 10 배에 달하는 1만 6,000 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년들의 범죄 건수는 1962년에 7만 2천 897 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에 비하여 2.5 배의 증가로 된다. 자살자수에 있어서도 최근 년간에 2 배로 격증하였다.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현 경제 위기는 전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 위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생산 《과잉》에 의한 공황적 현상과도 구별되며 활기 증진과 호경기를 전제로 하는 불경기 현상도 아닌 만성적이며 보다 파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위기의 근원은 략탈적이며 예속적인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있으며 남조선의 반동적인 사회 경제 체계에 내재하고 있다.

최근 년간 특히 군사 《정변》 후 남조선 경제 위기의 파국적 성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일련의 직접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로 케네디의 《대외 원조 정책》에 의하여 미제가 침략적인 군사비 부담과 식민지 통치비의 중하를 전적으로 남조선 인민에게 들씌우기 위한 책동이 강화된 그 사실이다.

최근 2 년 동안에 군사 《정권》의 《국방비 예산》은 28%나 증대되고 군사 시설 증강을 위한 재정 지출은 72%나 팽창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군사비로 충당되는 미국의 《대한 원조》는 절반이나 삭감되였다.

결과 동기간에 인민들로부터의 각종 수탈은 2 배 이상으로 강화되였다.

둘째로 박 정희 도당이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마련한 《정부》의 재정을 파쑈적 군사 통치 기구의 강화와 자기들의 장기 집권 책동에 탕진한 그것이다.

그들은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대한 군사 통치 기구를 조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 2 년간에 경찰, 행정 사무비를 2 배로 증가시켰다.

군사 《정권》의 중요한 지주로 되고 있는 《중앙 정보부》의 유지비는 괴뢰군 10 개 사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대등하다.

지어 박 정희 도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소위 《4대 의옥》 사건과 같은 투기, 협잡, 모리 행위를 감행하면서 수천만 딸라의 외화와 수십억 원의 국가 재정을 비법적으로 인출 탕진하였다.

세째로 군사 《정권》의 무지막지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정변 후 군사 《정권》은 소위 《혁명》과 《재건》의 구호 하에 완전히 객관적인 경제 법칙들을 무시한, 그야말로 파쑈적인 《경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나라의 경제 생활에 심대한 후과를 남기게 하였다.

례하면 박 정희 도당이 단행한 소위 《통화 개혁》은 장기간에 걸치는 생산의 침체, 중소 기업의 파산, 통화 체계의 혼란, 류통 부문의 마비 등 나라의 경제 활동과 인민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또한 정변 후 군사 《정권》의 《첫 시책》으로서 단행한 허울 좋은 《고리채 정리》는 농어촌 금융을 동결시키고 농민들을 더욱더 가혹한 고리채에 얽매이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반동 정책은 오래 전부터 만신창이 된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파국적 상태에로 줄달음치게 하는 《효과적인 촉진제》로 되였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에서 붕괴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를 수습하기 위하여 발악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직면한 남조선의 경제의 파멸적 위기를 다소 완화시켜 보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림시적이고 일시적인 《안정책》이나 《무마책》으로써는 남조선의 사회 경제 제도와 지배 체제에 깊이 뿌리 박은 현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생명을 걸고 실행하겠다고 장담한 《5 개년 경제 계획》을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성장 경제 정책》을 《안정 경제 정책》으로 바꾸며 재정 긴축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인플레의 폭발을 견제하고 경제적 혼란을 막아 보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금년도 《예산》을 재편성하고 재정 투융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약 43억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으며 《물자 수급 계획》을 수정하여 약 6,400만 딸라(약 18%) 분의 물자 수입을 축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중에서의 자금의 궁색과 원료난을 가중시켜 생산의 침체와 류통의 마비 상태를 일층 격화시키는 새로운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은 심각한 식량 기근을 다소 완화시켜 보려고 외곡 도입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40만 톤 (제 4 차 분으로)의 《잉여》 농산물을 더 끌어 들이기 위하여 애걸하는 한편 일본으로부터 도합 9만 톤의 량곡을 구걸하고 있으며 국고를 통털어 대만, 타이, 비르마 등지로부터 5만 여 톤의 량곡을 수입하기 위하여 교섭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외곡 도입과 국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량을 최대한도로 타산하여도 금년 7~10월까지의 총 량곡 소요량을 최소한 1,150만 석으로 볼 때 해'곡식을 먹을 때까지의 식량 절대 부족량은 450만 석을 초과할 것이다.

그런 데다가 금년도 추곡 생산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도열병》과 《이화 병충해》로 인하여 300만 석 이상이나 감수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남조선에서 식량 위기의 타개 전망은 극히 암담하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사촉 하에 《한일 회담》을 결속 짓고 일본 독점 자본을 조속히 끌어 들임으로써 절망적인 경제적 난관을 다소 극복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그들은 《평화선》 및 《어업 문제》 때문에 정돈 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 회담》을 진척시켜 보려고 서두르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요구에 완전히 굴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국 배족적 행동으로는 남조선의 현 사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인민들은 그것을 용허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듯 남조선 인민들의 경제 생활의 전망은 극히 암담하고 절망적이다.

이에 대하여 불란서의 한 부르죠아 통신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남조선은 지난 10 년간에 있어서 최악의 경제 쇠퇴를 겪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장래는 불안하고 국민 생활의 전도는 암담할 뿐이다.》

남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위기는 남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남조선 경제는 악화의 일로를 걸고 있으며 대중적 기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한 결코 달리는 될 수 없다.

남조선 인민들의 현 사태로부터의 유일한 출로는 오직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 나며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자주 자립을 쟁취하고 자주적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며 남북이 힘을 합쳐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시급히 복구하는 데 있다.

최근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최근 호 사설은 《이 나라에 독재와 부패의 씨앗을 뿌린 자는 과연 누구였던가. 바로 그것은 미국의 대한 정치, 경제, 군사 정책의 지지 밑에서 그 지반이 육성 보장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억 딸라에 달하는 원조를 받았음을 시인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라던 소득 향상이나 경제 체질 개선 욕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자유 세계의 방위라는 허울 좋은 책무를 다해 온 보람으로써 우리에게 차례진 것이란 너무도 형편이 없는 것이다… 자주 정신, 자주 판단 그리고 자주 처리만이 자주 민족 국가를 자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쓰고 있다.

자주 통일만이 남조선에 조성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으며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할 수 있다.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은 자주 통일의 이 절박한 력사적 과업을 기어이 성취하며, 자기의 활로를 개척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말레이시아 련방》 계획과 식민주의

《말레이시아 련방》 계획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조종 밑에 1961년 5월에 말라이 수상 라흐만 도당에 의하여 제기되였으며 그 후 라흐만과 영국 수상 맥밀란 간의 거듭된 모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되였다.

계획에 의하면 《련방》에는 현재의 말라이 련방의 11 개 주와 싱가포르,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를 포함한 15 개 주를 포괄하게 되며 각 주는 자체의 헌법과 주 정부를 가지게 되여 있다. 그리고 최고 련방은 각 주에서 선출된 대표들로써 구성되며 이 조직이 외교, 국방 및 국내 치안 등 최고 통수권을 행사하게 되여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11 개 주의 자격으로 《련방》에 참가하게 될 말라이가 앞으로 《련방》 내에서 특권을 가지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말라이 반동 계층들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이 《련방》 조작 음모에서 최선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련방》 계획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련합하여 통치하라》는 수법에 따라 소위 《독립》을 허여한다는 미명 밑에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 등 자기의 식민지들을 련합 통치함으로써 반동 세력의 규합에 의거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앙양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며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다.

1962년 초에 발표된 싱가포르의 38 개의 로조 콤뮤니케에서는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의 목적은 이 지역들에 대한 식민지적 통치 지위를 강화하며 모든 반동 세력을 집결하여 진보적 력량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데 있다고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남 아세아의 이 지역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식민지 리권과 대외 침략을 위한 중요한 요충 지대를 이루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벌써 지난 세기 20 년대부터 세계에서 극히 풍부한 자원(동남 아세아에서 최대의 석유 산지이며 주석은 세계 총 생산량의 3 분의 1, 고무는 4 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여 왔다.

일례로 현재 영국 자본은 말라이의 주석 채굴의 60%, 고무 생산의 70%, 야자 재배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영국 독점 자본가들은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 등 자기의 식민지들에서도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이 지역을 아세아 침략의 교두보로 리용할 목적

밑에 침략적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에 자기의 전투 부대들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러면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련방》 통치, 즉 《련합하여 통치하라》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는 리유는 어디 있으며 그에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이 지역에서의 반영 민족 해방 투쟁이 최근 년간 급격히 앙양된 결과 종전의 방법 대로는 식민지 통치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인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미명 밑에 이 나라들을 자기의 철저한 괴뢰인 말라이의 라흐만 도당을 《핵심》으로 하는 《련방》에 망라함으로써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영 제국주의자들이 《련방》 통치를 조작하는 리면에는 일반적인 이러한 리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이 비상히 높고 그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이 《독립》을 허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의 충실한 괴뢰를 내세우는 것을 상투적 수단으로 삼는다. 그들은 만일 《독립》 후의 괴뢰 지반이 완전히 《믿음직하지》 못 하거나 식민지 통치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련합하여 통치》하는 방법에 매달린다. 오늘 동남 아세아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하고 있는 《련방》이 바로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민주 력량의 진출에 대처하여 그를 무마 말살하자는 것이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는 현 집권당 인민 행동당으로부터 좌익 세력이 분리하여 나옴으로써 동 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있다. 39 명의 중앙 위원 중 로조 단체 출신인 13 명의 위원과 수 많은 당원들이 인민 행동당의 우익화 정책을 반대하여 좌익 당인 사회주의 전선을 형성하였다.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의 민주 력량의 확대 발전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통치 지반에 대한 위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공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외신들까지도 싱가포르의 민주 세력의 강화 발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현 상태에서 싱가포르가 《독립》한다면 《작은 중공》으로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 밖에 말라이,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에서도 민주주의적 력량이 강화되고 있으며 광범한 인민들이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집회, 시위,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여러 나라들을 따로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 《련방》에 합병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협하는 이 지역에서의 진보적인 민주주의적 력량과 좌익 세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 제국주의자들은 《련방》 통치를 조작함으로써 동남 아세아에서 공산주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를 반대하기 위한

《반공》 기지를 축성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 침략의 보다 《굳건한》 지탱점을 만들려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련방이 형성되면 영국과 말라이 간의 현존 방위 협정이 기타 유관 령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고 한 영국과 말라이 공동 성명의 내용은 그의 음흉한 기도를 여실히 폭로하여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련방》 계획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반동적, 《반공산주의적》, 침략적 목적은 물론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제는 《말레이시아 련방》 계획을 《공산주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자기 대로 이 지역에서의 자기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미제는 《말레이시아 련방》이 영국의 독점물로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것을 미제의 통치 하에 있게 될 동남 아세아 국가 련맹에 포함시킬 것을 타산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만일 계획 중인 <말레이시아 련방>을 동남 아세아 국가 련맹에 가입시키게 되면 동남 아세아 국가 련맹은 5천만의 인구를 대표하게 될 것이며 국제 문제에서도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조직으로 될 것이다.》고 로골적으로 쓰고 있다.

미제는 자기의 세력 확장을 위한 막후 공작을 강화함에 있어서 비률빈을 리용하고 있다.

금년 초에 진행된 영국과 비률빈 간의 회담에서 비률빈 대표가 북부 보르네오의 《말레이시아 련방》에로의 병합을 완강히 반대하는 한편 《말라이 출신 민족들의 련합》 창설안을 내놓은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미제는 비률빈을 리용하는 동시에 싱가포르의 군사 기지는 쎄아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부터 이 지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영국은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맞서 나오고 있다.

영국은 《싱가포르 군사 기지는 영국의 것이지 쎄아토의 군사 기지는 아니다. 영국은 그의 통제권을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집단에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오늘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련방》 계획을 예견한 대로 금년 8월 31일에 실현하려고 라호만 도당을 적극 추동하면서 회유 기만의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련방》 계획 실현을 위한 영국과 라호만 도당의 책동의 교활성은 최근 시기 《국민 투표》를 비롯한 각종 기만극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기만극이 소위 《민주주의》의 가면 밑에 《대부분의 인민들이 말레이시아 계획을 찬성한다.》는 구실을 조작하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련방》 계획은 영국 식민주의자들과 라호만 도당의 탄압과 회유, 기만에도 불구하고 말라이, 싱가포르,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영국 잡지 《동방 세계》도 《시대는 변하였다. 이 적은 지역들에서도 바로 아세아와 기타 지역처럼 강유력한 반식민주의 폭동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련방》 계획은 또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치고 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와 지리 상으로 긴 공동 국경을 이루고 있는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의 《말레이시아 련방》에로의 합병은 인도네시아 인민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련방》 계획의 목적의 하나가 인도네시아를 포위하고 진보적 세력의 영향력을 가로 막으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당황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인민들을 탄압하며 무장 투쟁을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제는 《반란 진압》이라는 구실 하에 쎄아토를 개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할 수는 없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이미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 련방》 계획의 침략적 본질을 똑똑히 깨닫고 있으며 다시는 종전과 같은 노예의 운명을 강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 식민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라호만 도당의 발광적인 책동에 의하여 《련방》이 결성된다 해도 결코 이 지역 인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확대 발전되는 투쟁의 불'길 앞에 식민주의자들은 파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북부 보르네오에서의 혁명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 다년간 압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해방 운동은 오직 승리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 브루네이 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의 말은 이 지역 인민의 일치한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

전 기 홍

공장 경영 활동에서 량적 지표와 질적 지표

공장, 기업소 경영 활동의 최종 목적은 그에 제시된 국가 계획 지표들을 수행하며 초과 수행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의 성과는 결국 부과된 계획 지표들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 즉 량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어김 없이 수행하도록 되여야 한다.

그러면 어째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량적 지표란 공업 총 생산액, 상품 생산액, 현물 생산량 등 지표들을 두고 말한다. 즉 그것은 공장, 기업소 생산 활동의 량적 측면을 표시하는 지표이다.

반면에 질적 지표는 생산 경영 활동의 질적 측면을 표시해 주는 지표이다. 공장 기업소의 로동 생산 능률, 원가, 수익성 등 지표와 직기 1 대의 시간당 생산량, 주물 직장 평방메터당 주철 생산량, 종이 톤당 팔프 소비량, 정광 품위 등 고정 폰드 및 류동 폰드 리용의 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특징 짓는 지표들이 바로 이에 속한다.

공장, 기업소의 량적 지표는 모두 인민 경제 전반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생산 과제의 한 부분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된 량적 과제를 수행할 때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량의 생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량적 지표의 수행은 그와 련관된 기업소와 부문의 생산적 련계와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가령 견방직 공장에서 비단을 생산하자면 제사 공장에서 일정한 량의 명주실을 제때에 생산하여 주어야 한다. 만일 제사 공장에서 명주실 생산 지표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견방직 공장의 생산에까지 지장을 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 생산 계획에 예견된 품종별, 지표별 계획을 엄격히 보장하는 것은 기업소들과 그 내부 단위들 간의 생산적 련계가 날로 복잡하여지고 있는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공장,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서 량적 지표가 이와 같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의 수행에만 관심을 돌리고 질적 지표에는 적은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된다. 기업소의 생산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량적 지표와 함께 반드시 질적 지표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생산 경영 활동의 목적이 보다 적은 로력과 자재 및 자금을 가지고 값 눅고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질적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같은 조건에서 량적 지표를 수행하자면 반드시 질적 지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질적 지표의 개선은 량적 지표의 수행을 보장한다. 물론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적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도 량적 지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로동 생산 능률은 높이지 않고 로력자 수를 불쿠거나 자재 소비 기준은 준수하지 못 하고 원가를 높이면서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로력과 자재의 랑비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지장을 준다.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에서 질적 지표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량적 지표만을 높이려는 것은 그릇된 방법이다.

공장,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서 질적 지표를 개선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 경제 지도 일'군들이 기업 관리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량적 지표와 질적 지표에 다 같이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질적 지표를 개선하는 데 보다더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면 현 시기 공장, 기업소 경영 활동에서 지도 일'군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돌려야 할 질적 지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선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지표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1 인당 생산액의 제고는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케 함으로써 국민 소득과 인민 경제의 축적을 증대하여 인민들의 살림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꾸릴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 당은 이미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인민 생활의 더욱 급속한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항상 사업의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1 인당 생산액 지표를 제고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며 그의 투쟁에로 로동자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기업 관리 운영을 짜고 들어 조직하고 로동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잘 동원하여 1 인당 생산액 지표를 부단히 개선하고 있는 평양 전선 공장의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이 공장에서는 금년에 들어 와서 지도 일'군들이 우선 로동 행정 사업을 틀어 쥐고 로력 관리를 잘 하여 직접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비중을 지난 해보다 2%나 더 높이였으며 기술 기능 학습을 잘 조직하여 로동자들의 평균 기능 급수를 0.6 급 더 제고하였고 798 건의 작업 기준량을 개선하였다. 다른 한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종전에 12 명의 로력으로 수행하던 권선 작업을 불과 한 명이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아마사 권선기와 쥬빙기 지구를 창안하는 등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무려 123 건 이상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 지난 5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이 약 1.5 배로 제고되였다.

이 경험은 현 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 기술 혁신 운동의 전개 등으로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데에 생산 장성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생산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생산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는 설비와 물자 자원 리용의 효과성을 표시해 주는 지표들로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생산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를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추가적인 설비와 원료, 자재를 가지지 않고도 생산을 증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되기 때문이다.

금년에 들어 와.쥬빙시에 쥬빙기의 머리로 나오는 비닐을 재생 리용하여 비닐 실수률을 국가 계획보다 1.9%나 더 제고함으로써 실로 4만 여 메터에 달하는 옥내선을 피복할 수 있는 비닐을 추가적으로 얻어 낸 평양 전선 공장의 경험은 오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커다란 예비가 있는가를 말하여 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업소의 생산 규모가 비록 작거나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에 반영되는 통계 수'자의 차이가 극히 적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가 적지 않다는 데 대하여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장, 기업소의 경영 활동을 개선함에 있어서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생산물의 원가

는 기업소 사업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질적 지표이다. 거기에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원료, 연료, 자재 소비 기준의 저하, 고정 폰드의 리용 상태 및 기타의 모든 경영 활동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물의 원가가 기업소 전체 사업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적 지표》(김 일성 선집 제 4 권, 123 페지)라는 것을 알고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지도 일'군들은 우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단위 제품에 포함되는 로력비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물론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한 원가의 저하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 평균 로임의 장성보다 앞서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함께 자재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저하시키고 대용 자재와 폐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오작품과 불합격품을 근절하고 각종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축감시켜야 한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량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잘 리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료해하고 분석하며 세밀히 조직함으로써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고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야 한다.

김 두 칠

근로자 제 14 호 (루계 22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7월 20일 인 쇄 • 1963년 7월 17일

ㄱ—330434 값 40 전

정 다산의 애국주의와 그의 활동

판 형 4×6 판
페지수 152

이 책은 조선 인민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백과 사전적인 대학자이며 열렬한 애국자인 정 다산의 애국주의 사상을 그의 활동과 결부시켜 서술 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그가 반동적 집정자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념원하여 얼마나 고심 분투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은 그의 학설, 그의 사상이 당대로서는 얼마나 선진적이였으며 우리 민족의 불멸의 유산으로서 세계 문화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정 다산의 사상과 그의 활동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참고로 될 수 있는 서적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